이달의 으뜸중기제품 메디칼드림 '요화학분석기'

"소변으로 18개 질병 예측" … 고가 대형장비 소형화

이규대 메디칼드림 대표는 회사 직원들로부터 요(尿)화학분석기 아이디어를 얻었다. 부모의 질병을 뒤늦게 발견해 후회하는 이들이 많았다. 치료비 부담도 컸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병원까지 모시는 것도 일이었다. '집에서 손쉽게 각종 질환을 예측하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다.

'제2의 혈액'으로 불리는 소변에 주목했다. 대형병원에서 쓰는 고가 장비를 소형화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2년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증 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7초 만에 18개 질환 예측"

메디칼드림 요화학분석기는 소변을 통해 각종 질환을 예측하는 제품이다. 특허를 받은 광도측정법을 이용한다. 검사지에 소변을 살짝 묻혀 제품에 넣으면 7초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포도당, 산성도(pH), 백혈구 수치 등 10개 항목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당뇨, 간경변, 췌장암 등 18개 질병을 예측한다. 이 대표는 "임상시험 결과, 대형 장비와 93% 이상의 일치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크기가 작은 만큼 가격도 저렴하다. 병원에서 쓰는 장비는 수백만원에서 수억원대에 이른다. 메디칼드림 요화학분석기는 40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일반 가정과 소형 병·의원을 중심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디자인'에 특히 신경을 썼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에서 영감을 얻어 휴대폰 모양으로 제작했다"며 "분홍, 보라 등 제품 색상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연동성도 높였다.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측정 결과를 전용 앱(응용프로그램에)에 저장할 수 있다.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다.

가정·중소병원 집중 공략
갤럭시 닮은 디자인 눈길
해외 50여개국 수출
동물용 제품도 개발 중

이규대 메디칼드림 대표가 요화학분석기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해외 반응도 뜨겁다. 지금까지 미국, 중국, 독일 등 50여개국 현지 업체와 총 1500만달러 이상의 판매 계약을 맺었다. 유럽과 중국에서는 인증을 마쳤고, 미국 등 다른 곳에서도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질병을 27개까지 늘리는 제품 업그레이드도 진행 중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는 데 주목해 동물용 요화학분석기도 개발하고 있다.

◆개발력으로 극복한 기술유출

이 대표는 1996년 메디칼드림의 전신인 대경산업을 세웠다. 해외 의료기기를 들여와 판매하는 사업을 벌였다. 첫 제품은 안마의자였다. 당시로서는 독특한 제품도 많이 팔았다.

허리를 조여 디스크 통증을 줄여주는 '디스크닥터',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한 '수도꼭지형 정수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공들여 키워놓은 제품이 다음번 계약 땐 대형업체로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2003년 자체 제조에 뛰어들었다. 12억원에 공장을 인수해 안마의자 개발에 나섰다. 5년간 중소업체로는 적지 않은 50억원의 연구개발(R&D)비를 쏟아부었다.

예기치 않은 위기를 맞기도 했다. 개발이 한창이던 2008년 함께 일하던 연구소장이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기고 연구원들마저 데리고 떠나버렸다.

다시 연구개발에 매달린 끝에 2011년 안마로봇의자인 '체어봇'을 개발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존 제품과 다르게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 생체신호를 파악해 신체 피로도·근육량 등을 보여주고, 체형에 따른 '맞춤형 안마'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치매예방 프로그램, 노래방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메디칼드림은 지난해 매출 172억원을 기록했다. 그동안 발명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200건 이상 등록 및 출원했을 정도로 기술 개발에 힘썼다. 이 대표는 "높은 기술력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세종바이탈-매듭이 필요 없는 실리콘 신발끈 (070)7166-3800 △메디칼드림-요화학분석기 (02)6000-7700 △후스타일-요거베리 요구르트메이커&치즈메이커 (02)6217-0112 △센서리움-부착형 자동문 전환 시스템 (031)795-5077

"우수 연구인력 유치위해 바텍, 호텔급 어린이집 건립"

안상욱 대표

치과용 영상기기 국내 1위
상반기 매출 1000억 돌파

치과용 영상진단장치업체 바텍(대표 안상욱)이 호텔급 사내 어린이집을 만든다.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바텍은 이런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이지만 어린이 10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최고급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바텍의 안 대표는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선 무엇보다 좋은 보육시설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20일 말했다. 바텍은 올 연말 완공예정인 화성 신사옥 연구동 1, 2층을 어린이집으로 꾸미고 있다.

안 대표는 "우수연구인력의 남방한계선은 경기도 판교"라며 "연구원 중에는 맞벌이가 많아 자연스레 질 좋은 보육시설을 직장 선택 시 최고 우선순위로 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본사가 판교보다 남쪽인 바텍이 인력유치를 위해 내세운 게 고급 어린이집이다. 그는 "면적이나 시설, 아동 대비 교사 비율도 최고 수준으로 갖추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실내 체육관도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사옥인 연구동은 연면적 2만3470㎡로 투자비가 총 230억원에 달한다. 연구시설, 보육시설과 더불어 임직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케어링센터 등이 들어선다.

바텍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히든 챔피언'기업이다. 지난 상반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해 1033억원(연결 기준)을 달성했다. 세계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수출이 절반가량인 5000만달러를 넘었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2차원(2D)과 3차원(3D) 이미지를 한번에 획득하는 혁신적인 치과용 영상진단장치다. 국내 1위 업체이며 세계 점유율은 약 12%로 5위권이다. 안 대표는 "제품 성능 대비 원가와 가격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을 뿐 아니라 엑스선 투과량도 줄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바텍은 이런 기술력과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10년 새 97개국에 판매망을 구축했다.

화성=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안상욱 바텍 대표가 화성공장에서 2·3차원 이미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치과용 영상진단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낙훈 기자

'쿡방' 시대, 눈·귀 즐겁해주는 '오감 주방기기' 눈길

뉴스카페

공중파와 케이블TV에서 '쿡방'(요리방송)이 최고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남자들도 앞치마를 두르는 '요리 전성시대'다. 주방용품 업체들에는 모처럼의 '대목'이다.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다양한 '오감'제품들을 내놓고 새로운 수요층 공략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구에서 더 나아가 조리 과정에서 시각 청각 후각 등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기능성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의 주방용품업체 월드키친의 '비전'(사진)은 갈색의 투명한 유리 냄비다. 속이 훤히 보이기 때문에 굳이 뜨거운 냄비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식재료의 양이나 음식이 익어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요리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어 초보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월드키친 관계자는 "재료인 내열유리는 열효율성이 높아 조리된 음식을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다"며 "냄비째로 냉동고에 넣어도 되며 전자레인지와 오븐에서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투명한 용기로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는 '푸드스티머'를 내놨다. 뚜껑을 열지 않고도 재료가 익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이머 기능을 사용해 간편하게 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소리가 나는 주방용품도 눈길을 끈다. 키친아트의 '뉴스타 뮤직 주전자'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 손잡이에서 소리가 난다. 주방용품업체 세신퀸센스의 '뮤직 주전자' 역시 물이 끓으면 뚜껑에 부착된 휘슬이 멜로디를 울린다.

뒷정리인 설거지를 할 때면 음식물 냄새가 뒤섞이기 마련이다. 애경의 주방세제 브랜드 순샘에서 선보인 '셰프의 선택'은 은은한 발효 식초 향기가 불쾌한 음식 냄새를 잡아준다. 셰프들이 설거지에 활용하는 발효와인 식초 성분을 첨가해 오염물 및 냄새 제거 기능을 강화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40~50대 허리환자 급증

건강보험심평원

허리를 삐끗해 인대를 다치는 40~50대 염좌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2~2014년 허리, 발목, 손목 염좌 환자를 분석한 결과 허리염좌 환자는 2012년 205만3000명에서 지난해 212만6000명으로 3.5% 늘었다.

지난해 허리염좌 환자 중 40~50대는 총 86만5000명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발목염좌 환자는 10대가 30.1%로 가장 많았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